

현안과제연구

2015. 11. 13

# 개발사업이 황새에 미치는 영향 및 바람직한 복원 사업 방향 제시

연구수행 : 정옥식 · 김기흥 · 임준홍



# 개발사업이 황새에 미치는 영향 및 바람직한 복원 사업 방향 제시

연구수행 : 정옥식 · 김기홍 · 임준홍



# 목 차

## I. 황새 현황

1. 국내외 황새 서식현황 / 1
2. 예산 황새 복원현황 / 2

## II. 황새 개체수 감소 및 서식 저해 요소

1. 서식지 파괴 / 2
2. 송전선로(철탑) 충돌 및 감전 / 3
3. 기타 / 4
4. 산림개간 / 5

## III. 황새보전 및 복원 해외 사례

1. 일본의 황새 복원 및 관리 / 6
2. 유럽연합(EU)의 유럽황새 관리 / 8

## IV. 예산 황새 관리를 위한 방안

1. 서식지로서 예산군이 지닌 문제점 / 12
2. 예산 황새 보전을 위한 방안 / 16

## 부록.

<부록 1> 일본 토요오카시 환경기본조례 / 23

<부록 2> 일본 토요오카시 경관조례 / 28



# I. 황새 현황

## 1. 국내외 황새 서식현황

### 가. 국제 서식현황

- 황새는 중국의 남부, 한반도를 비롯하여 일본 등에서 서식하는 텃새로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의 하바로브스크, 중국의 바이칭시 지역에서 번식하는 무리는 번식 후 남하하여 월동을 함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멸종위기종(EN)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습지 면적의 감소로 인해 개체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특히 러시아 번식 개체수가 급감하여 전세계생존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음
- 전세계생존개체수는 1999년의 경우 3,000여마리로 추정하였으나 현재는 약 1,000~2,499마리로 추정하고 있음

### 나. 국내 서식현황

- 국내에서 텃새로 서식하던 개체군은 1971년 충북 음성에 남은 마지막 한 쌍의 수컷이 밀렵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음
- 국내에는 겨울철에 월동하는 개체가 소수 서식하고 있으며 천수만, 해남 등에서 10~20여마리 내외 수준으로 도래하고 있음
-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 199호로도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음

## 2. 예산 황새 복원현황

- 1996년 러시아에서 유조 2마리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독일 동물원에서 사육중 개체 2마리를 도입하는 등 4마리를 확보한 후 인공증식을 시도하였으며 이후 151마리까지 증식 개체수를 확보하였음
- 2009년 황새마을조성사업 대상지로 예산군이 확정되었으며 2014년 황새마을이 조성된 이후 교원대 황새복원센터 내 황새 60개체를 이전하였음
- 야생적응 훈련을 마친 유조 2마리를 비롯하여 성조 6마리(총 8개체)를 최근(2015년 9월 3일)에 야생으로 방사하였음

## II. 황새 개체수 감소 및 서식 저해 요소

- Birdlife International 및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문헌 등에서 황새 개체수 감소 및 서식 저해요소로 크게 서식지 파괴와 송전선로, 밀렵, 어업활동, 화학물질 사용, 산림 개간 등을 제시하고 있음

### 1. 서식지 파괴

#### 가. 농경지 조성을 통한 습지 면적 감소

- 습지의 경우 황새의 주된 먹이공급처인 관계로 습지면적의 감소는 황새 서식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황새의 최대 월동지로 알려진 양쯔강의 경우 주변의 범람지가 농경지로 변화함에 따라 황새의 서식지(먹이터)가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황새의 개체수도 급감하였음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의 경우 또한 이러한 경향이 50~60년대에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황새 개체수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나. 댐 조성을 통한 하천 수위 변경

- 댐 조성의 경우 하천의 수위를 증가시킴에 따라 황새의 경우 먹이활동 공간이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함
- 최근 아무르강에 대형 댐 건설로 인해 하천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황새 먹이 공간이 줄고 이로 인해 황새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였음, 특히 얕은 물에서 물고기를 비롯하여 양서파충류를 주식으로 삼는 황새가 타 종에 비해 받는 영향을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음

## 2. 송전선로(첼탑) 충돌 및 감전

-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국내 서식종인 황새와 관련한 자료는 없지만 90년대 초반까지 황새와 동일 종으로 취급되던 유럽황새의 경우 송전선로 및 첼탑과 충돌 및 감전에 의한 피해가 많이 보고되었음에 따라 국내 황새 종 또한 이에 대한 피해도 예상되고 있음
- 유럽황새의 경우 송전 선로 및 첼탑에 의한 충돌사 및 감전사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스페인 지역에서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개체수가 많을수록 전선에 의한 충돌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송전선로 및 첼탑의 유형, 첼탑 및 송전선로 주변의 서식지 배치 등에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스페인 지역 송전선로에 의한 유럽황새의 충돌 및 감전사 비율은 연간 전선의 길이 Km 당 3.9개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첼탑의 높이가 높고 가로 구조물이 있을수록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변에 습지가 있는 경우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

- 피해 발생 시기를 볼 때 번식 직후와 월동시기에 보다 많은 발생을 보이며 이는 번식 직후 둥지를 떠난 어린 개체가 분산을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월동시기에 타 지역에서 이동해 온 개체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연구에 의하면 유럽황새의 번식 직후 새끼들의 폐사율은 2~11%에 이르며 이들 폐사원인으로 60~70%가 송전선로 혹은 철탑에 의한 충돌 및 감전사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Tobolka 2014)



[그림 1] 송전선로 충돌에 의해 폐사한 조류

출처 : <http://strangedaysindeednews.blogspot.kr/2013/09/helicopter-rescue-for-seagull-trapped.html>

### 3. 기타

#### 가. 밀렵

- 과거에는 박제 수집과 단순 사냥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밀렵에 의해 많은 개체수가 포획되었음

- 최근에는 황새 보전을 위한 각국의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사냥에 의한 포획은 줄어든 반면 동물원이나 전시장의 전시 목적으로 매매가 이뤄짐에 따라 이를 위해 생포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음

## 나. 어업활동

- 중국의 양쯔강 등 황새가 서식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어업활동으로 인해 황새 먹이 고갈 문제가 제기되곤 함
- 또한 어업활동에 의한 먹이고갈 뿐 만 아니라 어업활동으로 인한 선박운행, 그물 작업 등에 따른 방해요인 발생으로 인한 황새의 휴식 및 먹이활동 저해로 서식지 질로 나빠지는 등의 간접 영향도 발생하고 있음

## 다. 화학물질(농약 등) 사용

- 하천 주변과 농경지에서 주로 먹이활동을 하는 황새의 경우 이러한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 즉, 어류와 양서류충류를 먹이로 삼고 있음
- 하지만 농경지에 살포되는 농약에 의해 먹이가 감소하는 것과 더불어 농약이 함유된 먹이를 먹고 2차 중독이 발생하기도 함
- 또한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을 통해 먹이감소 또한 이들의 서식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4. 산림개간

- 최근 아무르 지역을 비롯하여 러시아 지역에서 최근 대규모 개간 사업으로 인해 번식 목(木)으로 이용되는 수목이 사라짐에 따라 번식이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 번식지 주변에서는 봄철에 화전을 위해 대규모로 화재를 일으킴에 따라 번식지가 훼손되기도 함

### III. 황새보전 및 복원 해외 사례

#### 1. 일본의 황새 복원 및 관리

##### 가. 일본 황새보전 역사

- 1921년 황새의 번식지인 이즈시(出石)의 카쿠잔(鶴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음
- 1953년 천연기념물 지정을 황새의 '서식지'에서 '종'으로 변경하였음
- 1956년 천연기념물에서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음
- 1959년 '황새 보전 운동' 실시하고 인공둥지 탑 설치하였음, 마지막 야생 황새 번식이 확인됨(4월에 토요오카시에서 새끼 한 마리가 둥지를 떠났으며 이는 토요오카시에서 마지막 야생에서의 번식 기록)
- 1962년 황새보전회 사무국에서 계속되는 황새의 죽음으로 황새 보호를 위한 인공사육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및 의견 결의함
- 1989년 25년만에 황새 인공사육번식에 성공하여 처음으로 새끼가 태어남
- 1992년 사육 중이던 황새의 장래 복원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황새미래 구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동시에 황새를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야생복귀의 거점시설 만들기로 함
- 1994년 황새장래구상조사위원회에서 야생복귀 기본구상 책정함
- 1995년 효고현 (가칭) '황새의 고향 공원기본계획' 책정하여 종의 보전과 연구의 거점시설 조성사업을 시작함
- 2003년 효고현 '황새 야생복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황새 야생복귀추진연락협의회를 설치하여 시, 군, 전문가, 주민 등 24개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정보를 공유하게 됨

- 2007년 43년만에 일본 야외에서 새끼 탄생(인공둥지의 황새 쌍에서 새끼 탄생)하고 46년만에 둥지를 떠남(인공탐에서 새끼가 둥지를 떠남)

## **나. 토요오카시의 황새 보전 사업**

- 토요오카시는 오래전부터 이미 황새가 서식해 온 곳으로 새롭게 관광자원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에 대한 보전 의식이 오랫동안 자리잡혀있음
-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황새에 대한 애착과 애정이 남다른 곳이라고 할 수 있음

### **1) 환경기본조례 제정**

- 황새보전을 위해 2006년 환경기본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으며 규제보다는 지역주민과 황새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마을 조성을 원칙으로 두고 있음
- 환경기본조례에서는 황새보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황새 새끼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한 서식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실천과 노력을 독려하고 있음
- 토요오카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는 별도의 경관조례가 있으며 이는 황새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마을 경관 보전을 위한 규제적 조례임

### **2) 서식지 보전 및 확대를 위한 노력**

- 거점이 되는 일정 규모의 습지와 논 습지 등 소규모 습지를 네트워크화함으로써 면적 확보 뿐 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풍부한 습지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음
- 야외에 사는 황새는 주로 인공둥지 탐(인공적으로 만든 둥지의 토대가 되

는 탑, 높이 약 12.5m)에 둥지를 만들어 황새의 번식을 유도하고 새끼들을 자라게 하고 있으며 시내에 있는 인공둥지 탑은 황새팬클럽과 지역상공회 등 많은 사람들의 지원으로 설치되고 있음



[그림 2] 황새 서식지 공급을 위한 습지 조성 (좌), 인공 둥지 탑 조성(우)

자료: 토요오카시 홈페이지

## 2. 유럽연합(EU)의 유럽황새 관리

### 가. 복원 및 기초 조사 연구

- 스위스의 경우 1950년대 유럽황새가 자국 내에서 절종함에 따라 이후 복원사업을 추진, 성공하여 현재 200여쌍의 유럽황새가 서식하고 있음
- 송전선로에 의한 사망률이 독일, 폴란드, 스페인 지역에서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서식지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되고 있음
- 황새 서식지를 비롯하여 개체군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 유럽황새 개체군의 보전과 관련하여 중간기착지와 월동지의 서식지 관리가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중간 기착지 및 월동지 내에 서식지 조성 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음

## 나. 유럽황새 보전 계획(action plan) 수립

-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관련 국가들에 의해 국제 황새보전계획이 2012년에 수립되었음
- 본 계획에서는 유럽황새의 실태와 더불어 보전을 위한 주요 목표, 실천 계획 그리고 사업별 중요도, 추진 일정 등을 기술하고 있음

### 1) 유럽황새 보전 계획의 주요 5대 목표

- 먹이터(먹이활동공간)의 조성 및 보전
  - 습지공간의 훼손으로 인한 면적의 감소는 황새 절종의 주된 요인 중 하나임. 따라서 해당 국가 혹은 지역 내 습지 면적의 확보는 황새 보전에 최우선의 과제임
- 중간기착지의 보전
  - 유럽황새의 경우 번식지인 유럽에서 월동지인 아프리카를 오고가는 동안 중간기착지에서 일정기간 머물며,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함, 하지만 중간 기착지 내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이동의 방해로 인한 월동 혹은 번식 실패로 종국엔 개체수 감소로 이어지므로 중간 기착지 보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 번식지의 유지관리
  - 번식공간의 훼손과 유조의 서식환경은 개체군 유지에 절대적인 요소임, 따라서 황새 개체군의 유지를 위해 번식지 보전과 번식재원의 확보가 필요함
- 송전선로 충돌 예방
  - 번식 후기 새끼 황새의 분산시 발생하는 가장 많은 사망요인 중 하나가 송전선로 충돌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월동지

내에서 가장 높은 폐사 원인 또한 송전선로에서 기인함

## ○ 인식증진

- 황새보전과 관련한 일련의 사업들은 황새 서식지 주변의 주민 혹은 사회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실행력을 담보하거나 실효성을 거두지 어려우므로 대국민 황새보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증대가 필요함

## 2) 유럽황새 보전 계획의 주요 실천 사업

- 보전 실천 계획의 보완 및 수립 : 황새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국가에서 계획수립 장려와 대한 계획수립 독려와 더불어 기존 계획의 수정 보완을 통해 보전 계획 실천력 강화
- 월동지 및 중간 기착지 서식지의 보전지역의 설정 : 유럽연합의 소속 국가들의 주요 황새 서식지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되지 않고 있음. 유럽황새의 생활환과 관련하여 관련 있는 서식지에 대한 보호구역 확대 지정 사업을 추진함
- 지역별 먹이공간의 보전 : 초기 보전계획의 경우 국제적 주요 서식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주요 서식지, 특히 먹이공간에 대한 보전을 장려함
- 습초지 조성을 위한 가축 방목 : 황새의 서식지로서 가치가 높은 습초지의 관리를 위해 소, 양, 버팔로 등 가축을 방목하여 생태적천이 단계를 지연시켜 습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킴
- 황새보전을 위한 국제협력강화 : 국가간 이동을 하는 황새보전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국가간 협력을 통해 이동경로, 서식지 이용 관련 정보를 상호교환하며 더불어 필요한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함
- 조류 친화적인 송전선로 및 첩탑 보급 : 중요 서식지 인근의 첩탑 혹은 전선의 경우 이동 혹은 변형을 위해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규 송전선로 및 첩탑 조성시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함



- **황새보전 관련 기초 자료 수집** : 이동 중 사망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서식지 및 번식쌍의 충실도 등 황새보전에 필요한 기초 정보이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료에 대한 연구 진행
- **친환경농업 권장** : 유럽연합에서 추진 중인 농업환경정책의 경우 농경지 내에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생물다양성은 황새의 먹이제공 역할을 하므로 중간 기착지, 번식지, 월동지 주변 서식지에 대한 지속적인 농업환경정책의 시행과 친환경농업을 장려함
- **서식지의 다양성 유지** : 번식기 동안 먹이활동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식지의 조성 보다는 서식지의 다양성 유지가 필요함
- **주기적 범람원의 조성 및 보전** : 황새의 먹이공간으로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이는 곳은 주기적인 범람원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범람원의 유지와 사라진 범람원에 대한 복원이 필요함. 뿐 만 아니라 범람원 인근의 습초지 또한 배후 먹이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으므로 범람원을 중심으로 한 주변 습지의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지속적이며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개체수에 대한 지역내, 국가내 동시센서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제적 모니터링 또한 주기적으로 추진함. 이와 더불어 서식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또한 추진됨
- **서식지 주변 화학물질 사용자제** : 서식지 주변의 지속적인 화학물질의 사용은 먹이감소의 원인일 뿐 만 아니라 먹이를 통한 2차 중독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음. 따라서 서식지 주변 화학물질 사용 자제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함

## IV. 예산 황새 관리를 위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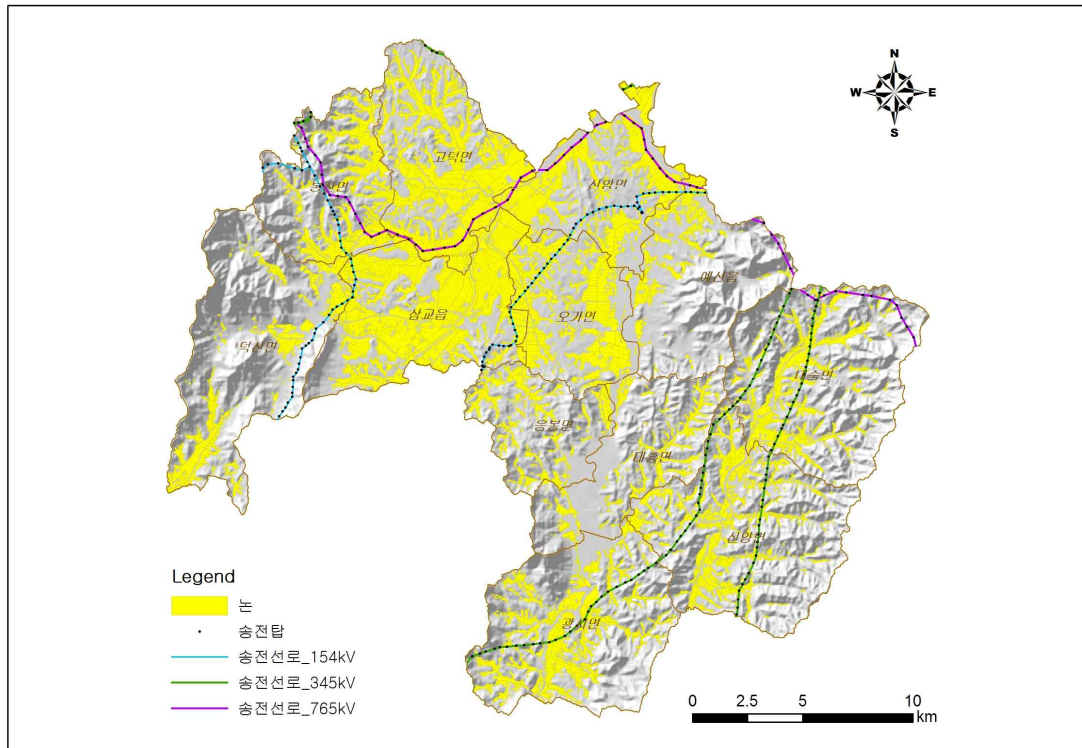
### 1. 서식지로서 예산군이 지닌 문제점

#### 가. 먹이공간의 부족

- 습지의 경우 황새의 중요한 먹이공급처이지만 국내 대부분의 지역 뿐 만 아니라 예산의 경우 습지의 면적이 많지 않음
- 저수지와 하천, 논·밭의 경우 황새의 먹이공급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지만 저수지와 하천의 경우 가장자리 수위가 높음에 따라 실제 먹이처로 이용될 공간의 면적은 적음
- 예당저수지의 경우 면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내륙 습지이지만 황새가 먹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얕은 수심지역이 적고 또한 낮은 수심지역에 낚시 좌대가 위치함에 따라 실제 먹이공간은 적은 실정임
- 농경지(논·밭)의 경우 대체 습지로 활용될 수 있지만 화학농법으로 경작되는 지역이 많고 친환경농법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의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실정임

#### 나. 서식지 주변에 위치한 송전선로 및 첩탑 위치

- 예산군 내에는 총 5개의 송전선로 경로가 지나고 있으며 예산군 농경지의 경우 크게 6패치로 구분되어짐
- 또한 송전선로 경로상에는 총 313개의 첩탑이 위치하고 있어 황새의 충돌 사고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음



[그림 3] 예산군내 송전선로와 철탁 위치

## 다. 개발사업 특히, 개별 개발행위과정에서 서식지의 훼손 우려

- 예산군은 매년 500여건(2013년 532건)의 개발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행위로 인해 황새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됨
- 하지만 이러한 개발행위와 황새서식지와의 관계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에 있어 서식지 훼손여부 등에 대해 파악하지 힘들
- 특히 환경성에 대한 분석이 미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개발행위로 인해, 황새의 주요 서식지가 침해 또는 감소될 우려가 상존함
- 개별 개발행위의 규제 및 허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4항에서 제시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운용되어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의 규모 기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표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기준**

| 실 과         |                              | 규 모    | 기 타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br>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         |
|             | 공업지역                         | 3만㎡ 미만 | -         |
|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         |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                              | 3만㎡ 미만 | 조례로 따로 지정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5천㎡ 미만 | 조례로 따로 지정 |

자료: 국토교통부. 2015.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

- 예산군의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 2] 예산군 개발행위허가 기준**

| 구 분 | 입목본수도                                    | 경사도       | 표 고             | 생태자연도 및 비오톱 등급  |
|-----|------------------------------------------|-----------|-----------------|-----------------|
| 예산군 | 평균 입목축적이 ha당<br>천안시 입목축척의<br>150% 이하인 토지 | 20도<br>미만 | 기준지반고 기준<br>50m | 비오톱 I.Ⅱ<br>제외지역 |

자료: 도시계획조례 참조 작성

-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3년 예산군은 532건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짐. 이처럼 황새 서식지와 관련성 검토 없이, 지속적인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황새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됨
- 이에 향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황새의 주요 서식지에 대한 고려나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서식지를 고려한 심의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요구됨

[표 3] 시·군별 유형별 개발행위허가 현황(건수) : 2013년

| 구 분        | 합계         | 토지<br>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 공작물<br>설치 |
|------------|------------|------------|-----------|------------|----------|-----------|
| 천안시        | 1,069      | 832        | 3         | 232        | 1        | 1         |
| 공주시        | 484        | 356        | 0         | 128        | 0        | 0         |
| 보령시        | 588        | 391        | 14        | 173        | 10       | 0         |
| 아산시        | 783        | 620        | 1         | 161        | 0        | 1         |
| 서산시        | 1,193      | 656        | 4         | 477        | 6        | 50        |
| 논산시        | 527        | 368        | 8         | 147        | 0        | 4         |
| 계룡시        | 66         | 55         | 0         | 10         | 1        | 0         |
| 당진시        | 994        | 540        | 1         | 452        | 0        | 1         |
| 금산군        | 137        | 121        | 9         | 0          | 3        | 4         |
| 부여군        | 327        | 212        | 0         | 114        | 1        | 0         |
| 서천군        | 260        | 89         | 3         | 160        | 0        | 8         |
| 청양군        | 269        | 191        | 2         | 73         | 0        | 3         |
| <b>홍성군</b> | <b>526</b> | <b>308</b> | <b>9</b>  | <b>208</b> | <b>0</b> | <b>1</b>  |
| <b>예산군</b> | <b>532</b> | <b>378</b> | <b>10</b> | <b>141</b> | <b>1</b> | <b>2</b>  |
| 태안군        | 844        | 377        | 31        | 434        | 2        | 0         |
| 총 남        | 8,599      | 5,494      | 95        | 2,910      | 25       | 75        |

## 라. 황새 보전·관리 전담 조직의 부재

- 황새복원사업의 경우 국외 사례를 볼 때 닫힌 공간에서의 증식과는 별개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이해와 협심을 기반으로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며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임
- 창녕군의 경우 따오기와 생태관을 전담하는 우포늪사업소가 별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산시의 경우 또한 천수만의 버드랜드 운영과 관리, 철새와 서식지 관리를 전담하는 사업소가 조직되어 있음
-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의 경우 순천만관리센터가 운영중에 있으며 정원운영과, 순천만보전과, 정원관리과로 구성되어 있어 순천만과 정원의 관리,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예산군 황새복원사업의 경우 문화관광과 내 천연기념물팀의 업무로 추진되고 있어 황새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황새의 서식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농업 및 농법, 자연환경, 도로, 저수지관련 업무와 관련한 실과 및 조직과의 협의와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업무적, 인력적 한계가 있음

#### ▶ 순천만관리센터

| 국가정원운영과                                                                                              | 순천만보전과                                                                                                      | 국가정원관리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행정</li> <li>▪ 운영</li> <li>▪ 수익</li> <li>▪ 문화체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천만관리</li> <li>▪ 순천만보전</li> <li>▪ 순천만시설</li> <li>▪ 해양수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li> <li>▪ 건축</li> <li>▪ 조경</li> <li>▪ 화훼연출</li> <li>▪ 습지센터</li> </ul> |

(출처 : 순천시 홈페이지)

## 2. 예산 황새 보전을 위한 방안

### 가. 논습지 조성 및 활용성 제고

- 부족한 습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농지를 이용한 습지 조성이 필요함.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일본의 경우처럼 4계절 무논습지를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농경지를 객토할 경우 생물다양성 감소가 우려되므로 먹이공급량 감소로

이러므로 황새의 먹이공급처로 활용도가 높은 농경지의 경우 객토를 지양하여야 함

- 농경지 내 시설재배의 경우 습지로서의 활용 가치가 낮으므로 농경지 내 시설재배를 지양하여야 함. 최근 들어 시설재배의 낮은 채산성으로 인해 대체작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체작물 개발 및 장려로 시설재배 면적의 자연적인 감소를 유도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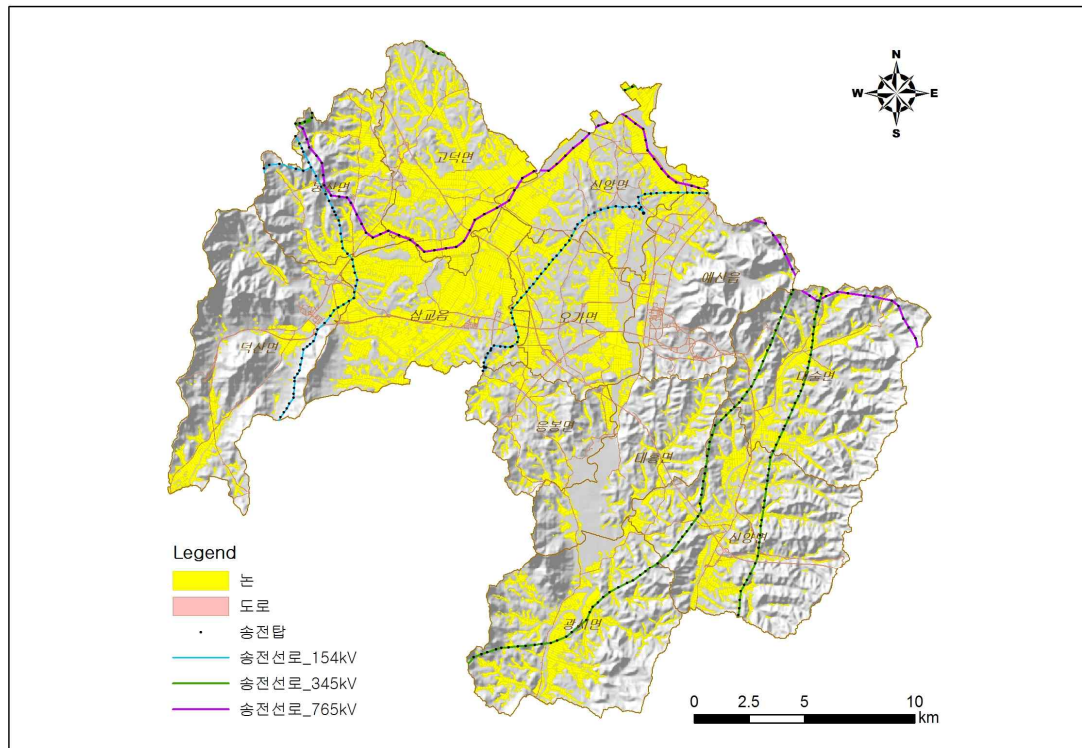
## 나. 핵심습지 조성

- 송전선로에 의한 충돌 위험이 적고 번식지 주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핵심 습지를 조성하여 예산군의 서식지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도로 주변에 위치한 습지의 경우 방해요인 발생빈도가 높으므로 가급적 도로와 이격된 지역에 조성되어야 함
- 안정된 습지가 공급되어 서식지 가치가 높아질 경우 예산군 서식 개체 뿐만 아니라 유조의 건강성을 높여 황새 개체군을 안정적으로 유지 시킬 수 있음
- 도로 위치와 송전선로 경로를 고려할 경우 삼교읍 지역 농경지, 예당호 주변 지역에 논을 활용하거나 저수지 주변 조절을 통해 핵심습지를 조성하여야 함

## 다. 개발행위허가 시 황새 서식지와의 관계 검토

-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황새 서식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황새서식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 개발행위허가와 황새 서식지 훼손의 관계를 모니터링 하여, 훼손이 우려되

거나 심화될 경우, 예산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황새 서식지 기준을 추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요구됨



[그림 4] 예산군 송전선로 경로와 도로 위치

## 라. 농업환경정책 시행

-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에서 시행중인 농업환경정책 시행을 통해 논의 습지로서 기능을 높임과 동시에 부족한 황새 먹이공급처로 활용도를 높임
- 농업환경정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농업직불금을 활용 개선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음



#### <농업환경정책>

- 1984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농업정책으로 농경지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함
- 농경지 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된 비용과 감소한 소득분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업임
- 영국의 경우 전체 농경지의 68%가 본 사업에 동참하고 있음
- 목표 생물종별로 농경지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등을 매뉴얼 등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음

### 마. 송전선로 보완 및 개선

- 유럽황새의 사례처럼 송전선로의 경우 번식 후기 유조의 충돌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돌 가능성이 높은 철탑 및 전선에 대해 경고등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또한 예산군 내부의 신규 송전선로 및 철탑의 신설을 가능한 자제함

### 바. 먹이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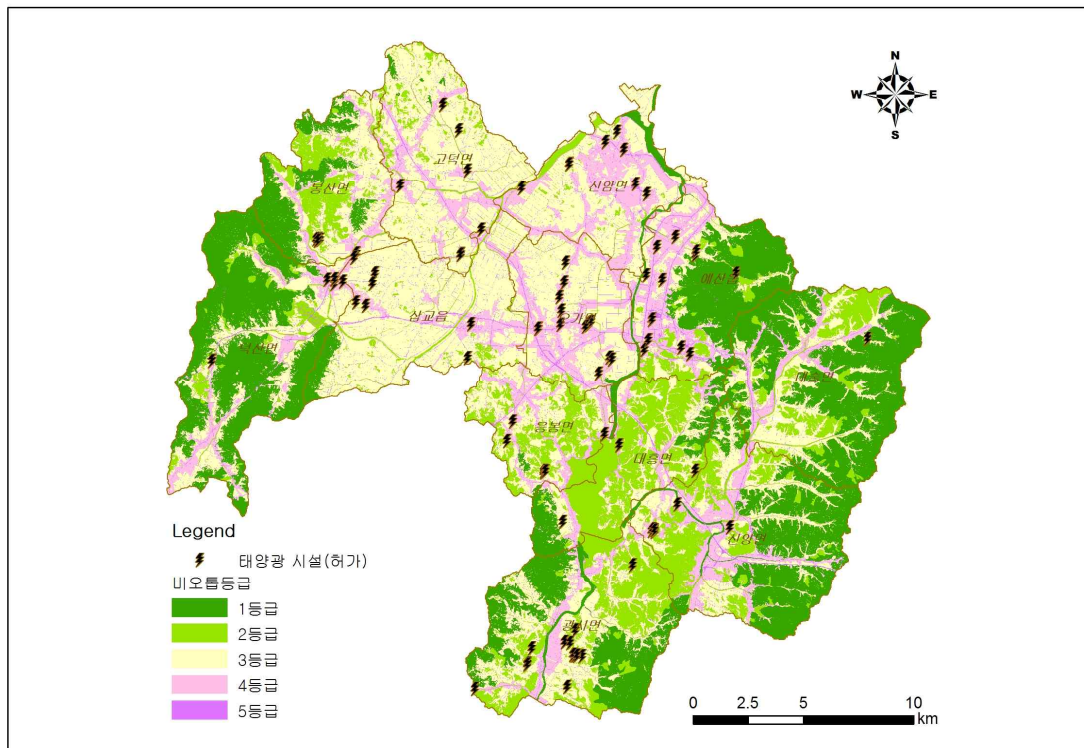
- 주요 서식지 주변 농경지 내에 미꾸라지 양식을 장려하는 등 이동 초기와 번식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할 기회를 제공함
- 또한 번식이 진행될 경우 번식지 주변 서식지 현황을 파악하여 임시적인 습지 조성 및 먹이 공간을 조성함

### 사. 조례제정

- 일본 토요오카시에서 제정한 황새 보전을 위한 환경보호조례처럼, 예산군 황새보호조례 혹은 관련 환경보호조례를 제정하여 황새 고향으로서 예산의 이미지 고취시킴과 동시에 주민들의 인식증진에 도움이 될 것임

## 아. 비오톱지도 활용 및 보전 지역 관리

- 예산군의 경우 우수한 자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비오톱지도를 작성한 바 있음
- 비오톱지도에선 생태적 서식지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을 지도화한 것으로 산림지역의 경우 황새의 서식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지만 예산군 자연환경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그림 5] 예산군 비오톱등급과 태양광 설치 위치

## 자. 겨울철 얼지 않는 수공간(습지) 조성

- 겨울철 월동 황새의 경우 얼지 않는 공간에서 먹이를 섭취하지만 수면이 얼 경우 얼지 않는 곳을 찾아 이동하게 되며 이러한 이동의 압력은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기도 함

- 따라서 겨울철 황새의 먹이처 공급을 위하여 얼지 않는 수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이 경우 방해요인 최소화를 위해 출입통제, 낚시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가장 적합한 지역은 예당호 남측, 무한천 하류 합수지역의 얕은 수심의 공간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차. 황새 보전 관리 전담 조직 신설

- 황새 서식지 조성을 위한 저수지관리, 농경지의 활용, 생태습지 조성과 방해요인 및 위협요인 저감을 위한 송전선로 및 도로 관리 등은 다양한 분야의 협의와 협조를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협의와 협조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며 현재 문화관광과 천연기념물팀 내 업무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선 근무 인력 보강이 필요하며 향후 별도의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5.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 국토교통부.

예산군. 2010. 예산군 비오름지도 구축. 예산군

Lovaszi Peter. Wite Stork Joint Transnational Action Plan.

José Rafael Garrido and Manuel Fernandez-Cruz. Effects of power lines on a White Stork *Ciconia ciconia* population in central Spain. *Ardeola* 50(2), 2003, 191-200. Artículos

Tobolka, Marcin. "Importance of juvenile mortality in birds' population: early post-fledging mortality and causes of death in white stork *ciconia ciconia*." *Pol. J. Ecol* 62 (2014): 807-813.

<http://www.city.toyooka.lg.jp/www/toppage/00000000000000/APM03000.html>  
(토요오카시 홈페이지)

## <부록 1>

### 토요오카시 황새와 함께 사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환경기본조례 (2006년 12월 26일)

조례 제65호

우리들의 마을 토요오카는 많은 산과 강과 아름다운 해안 등 멋진 자연으로 둘러싸여있다. 자연은 때로는 모습을 바꿔가며 재해를 일으켜 사람들을 힘들게도 하지만 우리들은 자연과 타협해 가면서 농업과 임업, 어업을 영위하고 또 여러 산업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터전을 만들어왔다.

또 그러한 자연과 문화 환경 가운데서 다양한 동식물을 지켜가면서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황새와 장수도롱뇽과도 유연하게 함께 살아왔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환경파괴, 생활양식의 변화 등에 따라 산과 하천은 더럽혀지고 생물은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토요오카를 일본에서 최후의 생식지로 해왔던 황새도 1971년에 하늘로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황새는 장시간의 끈기있는 노력에 의해 변천해가면서 2005년에 최초의 다섯 마리가 다시 토요오카의 하늘을 날게 되었다. 절멸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해온 우리들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과 황새가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한 환경, 다시 말해 황새의 서식지를 유지하는 풍부한 자연과 황새를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만이 인간에게 있어서 훌륭한 환경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황새의 야생 복귀를 심벌(상징)로 훌륭한 환경을 넓혀감으로써 미래의 세대에 이어져 갈 것을 결의하고 조례를 제정한다.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황새와 함께 살아가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 보전에 대해 기본 이념 및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고 이로써 현재 및

장래의 시민의 건강하고도 문화적인 생활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조례에서 ‘환경의 보전’이란 양호한 환경을 보존하고 재생하며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이념)

제3조 환경의 보전은 다음에서 말하는 기본이념으로서 행해져야만 한다.

- (1) 토요오카에 살거나 혹은 토요오카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서 사람과 황새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에 맞는 행동을 할 것.
- (2) 양호한 환경은 조상으로부터 받아 이어진 것임을 인식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할 것.
- (3) 지역별로 다른 환경에 맞추어 지역의 개성을 살리고 실천할 것.

(시민 등의 실천)

제4조 시민, 사업자, 방문자 및 시는 기본이념에 따라 환경의 보전에 관해서 자주적으로 혹은 지역 등과 상호에 협력하여 각각이 가능한 것에 노력해갈 것으로 한다.

(시책의 기본방침)

제5조 시는 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의 책정 및 실시에 있어 기본이념에 따라 다음에서 말하는 사항을 기본방침으로서 각종 시책 상호간에 유기적인 연대를 도모해가면서 종합적 혹은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한다.

- (1) 자연적자원, 문화적자원 및 역사적자원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통해 이를 양호한 상태로 보전할 것.
- (2)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존, 재생 및 창조하는 것을 통해 사람과 생물이 장래에 걸쳐 균형 있게 공생하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것.
- (3) 시민, 사업자 및 시가 연대해서 자원의 낭비를 없애고 순환형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것.
- (4)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전함과 동시에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에 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을 통해 친환경적인 사람(시민) 만들기를 추진할 것.
- (5) 환경의 보전에 관한 활동과 경제활동의 공감을 도모하는 것을 통해 환경의 보전에 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6) 앞의 각 호에서 말한 사항 그 외 환경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 지구 환경의 보전에 공헌할 것.

(환경기본계획)

제6조 시장은 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혹은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함)을 책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환경기본계획은 다음에서 말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환경의 보전에 관한 장기적인 목표 및 시책의 방향

(2) 앞 호에서 거론한 것 외에 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토요오카시 환경심의회 의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4.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책정한 경우, 신속하게 이를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5. 앞 2항의 규정은 환경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6. 시장은 제2항제1호의 목표를 설정한 경우, 매년도 그 달성 상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행동지침의 책정)

제7조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민, 사업자 및 시가 환경의 보전에 노력하기 위한 지침을 책정하고 보급 및 계몽에 노력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한 행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2. 앞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앞 항의 지침의 책정 및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시민 등의 의견의 반영)

제8조 시장은 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의 책정 및 시책에 있어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시민 등의 자주적인 활동의 지원)

제9조 시는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시의 환경에 대한 배려 등)

제10조 시는 그 사무를 행함에 있어 기본이념에 맞추어 환경의 보전에 적정하게 배려하거나 혹은

술선해서 행동해야만 한다.

2. 시장은 시가 실시하는 사무가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정보의 수집)

제11조 시는 환경의 상황 그 외의 환경의 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정보의 공표)

제12조 시장은 매년도 다음에서 말하는 사항을 토요오카시 환경심의회 의 의견을 덧붙여서 공표해야만 한다.

(1) 환경의 상황

(2) 제6조 제2항 제1호의 목표의 달성 상황 및 그 평가

(3) 시민, 사업자 및 시가 환경의 보전에 대해 노력한 내용 및 그 성과

(4) 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 및 그 시책에 대한 반영 상황

(5) 그 외 환경의 보전에 관해 시장이 필요로 인정한 사항

2. 앞 항에서 정한 것 외에 시는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의 이익 및 권리의 보호에 배려해가면서 환경에 관한 정보를 공표해야만 한다.

3. 시는 환경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경우, 그 정보가 시민 및 사업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규제 등의 조치)

제13조 시장은 환경의 보전에 지장을 주거나 그럴만한 행위에 관해 필요한 규제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2. 앞 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시장은 환경의 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도, 조언,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 및 그 외 지방공공단체와의 협력 등)

제14조 시는 환경의 보전을 위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 및 그 외 지방공공단체와



협력해서 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2. 시는 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 및 그 외 지방공공단체에 의견을 전하는 것으로 한다.

(환경심의회)

제15조 환경의 보전에 관해 기본적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토요오카시 환경심의회를 둔다.

2. 토요오카시 환경심의회의 권한 사무, 조직, 운영 그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위임)

제16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2. 제6조제6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규정에서 정하는 2007년도에 관한 사항으로부터 적용한다.

(키노사키초 환경보전기본조례 등의 폐지)<sup>1)</sup>

3. 다음에서 말하는 조례는 폐지한다.

(1) 키노사키초 환경보전기본조례(1974년 키노사키초 조례 제35호)

(2) 황새와 함께 사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환경기본조례(2002년 토요오카시 조례 제13호)

(토요오카시 환경심의회 조례의 일부 개정)

4. 토요오카시 환경심의회 조례(2006년 토요오카시 조례 제42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과 같이) 생략

---

1) 토요오카시의 옛 이름

## <부록 2>

### 토요오카시 경관조례 (토요오카시 조례 제34호)

####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시의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대해 시, 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밝힘과 동시에 경관법(2006년 법률 제110호, 이하 ‘법’이라 함)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풍부한 자연과 마을이 조화를 이룬 토요오카 고유의 경관을 보전하고 육성하며 또 창조하여 이로써 시의 매력과 활력을 높여 차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제2조 이 조례에서 다음 각호가 말하는 용어의 의미는 각각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 (1) 건축물: 건축기본법(1950년 법률 제201호)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 (2) 공작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과 그 외의 공작물로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건축 등: 법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 등을 말한다.
- (4) 건설 등: 법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설 등을 말한다.
- (5) 대규모건축물 등: 다음에서 말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시의 구역 가운데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또는 형성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경관계획 (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관계획을 말한다. 이하 동일)에서 정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건축물이면서 높이가 15미터를 넘거나 또는 건축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것 혹은 공작물로서 높이(해당 공작물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설치되어 있을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높이와의 합계)가 15미터를 넘거나 또는 그 부지용으로 공유되는 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것.

나. 시의 구역 가운데 가에서 정하는 구역 이외의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면서 높이가 12미터를 넘거나 또는 건축면적이 300평방미터를 넘는 것 혹은 공작물이면서 높이(해당 공작물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설치되어 있을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높이와의 합계)가 12미터를 넘거나 또는 그 부지용으로 공유되는 면적이 500평방미터를 넘는 것.

- (6) 시민: 시내에 거주하는 자 혹은 시내의 토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 (7) 사업자: 법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설계 또는 실시에 관련된 자를 말한다

(시의 책무)

제3조 시는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선진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해야만 한다.

2. 시는 앞 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책정 혹은 실시에 있어서는 시민 혹은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3. 시는 법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의 정비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배려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4. 시는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관해서 시민, 사업자 혹은 시민단체(시내의 양호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행하는 단체를 말함. 이하 동일)가 주체적이고도 적극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의식의 고양에 도모해야만 한다.

(시민의 책무)

제4조 시민은 스스로가 경관의 형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야만 함과 동시에 시가 실시하는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관한 시책에 노력해야만 한다.

(사업자의 책무)

제5조 사업자는 스스로가 행하는 사업 활동이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사업의 실시에 관해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노력함과 동시에 시가 실시하는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관한 시책에 노력해야만 한다.

(국가 등에 대한 요청)

제6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가 그 외의 지방공공단체 혹은 시내에서 활동하는 공적단체에 대해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경관계획의 책정)

제7조 시장은 양호한 경관의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의 전역을 경관계획지구로서 경관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경관형성중점지구의 지정)

제8조 시장은 특히 중점적으로 양호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경관형성

중점지구로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고대상에게 추가하는 행위)

제9조 법제16조제1항제4호의 조례에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서 말하는 행위로 한다.

- (1) 토지의 개간,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그 외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 (2) 목축의 벌채
- (3) 옥외의 토석, 폐기물(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1975년 법률 제137호)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말함),再生资源(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48호)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자원을 말함) 그 외의 물건의 이적
- (4) 수면의 매립

(신고를 요하는 행위에 관한 사전협의)

제10조 법 제16조 제1항 혹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사전에 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함)를 해야만 한다.

2 시장은 앞 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있을 경우에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협의를 한 자에 대해 신고에 관한 행위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예측 또는 평가(이하 ‘경관영향평가’를 함)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시장은 전 항의 경관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해 토요오카시 계획심의회조례(2005년 토요오카시 조례 제145호) 제1조에서 규정하는 토요오카시 도시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고에 첨부하는 도서)

제11조 경관법시행규칙(2006년 국토교통성령 제100호)제1조 제2항 제4호의 조례에서 정하는 도서는 다음에서 말하는 도서로 한다.

- (1) 제9조에서 말하는 행위를 행하는 토지의 설치 혹은 해당 토지의 주변의 상황을 표시하는 도면으로 축척 2,500분의 1이상의 것
- (2) 해당 행위를 행하는 토지의 구역 혹은 해당 구역 주변의 토지의 상황을 알려주는 사진
- (3) 해당 행위의 실시방법을 밝히는 도면으로 축척 100분의 1 이상의 것
- (4) 앞 3호에서 말한 것 외에 경관에 관한 배려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행위의 완성 또는 중지의 신고)

제12조 법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신고와 관련한 행위를 완성 또는 중지한 경우는 규정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청해야만 한다.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

제13조 법 제16조 제7항 제11호의 조례에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서 말하는 행위로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경관형성중점지구 이외에서 행하는 행위로 다음에서 말하는 것

가. 대규모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등 혹은 공작물의 건설 등

나. 대규모 건축물 등의 외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된 수선 혹은 모양변경 또는 색채의 변경으로 해당 행위에 관한 부분이 외관의 2분의 1미만인 것

다. 가설의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설치기간이 90일 미만의 것

라. 제9조 제1호, 제2호 혹은 제4호에서 규정하는 행위 가운데 해당 행위에 관한 면적이 500평방미터 미만의 것

마. 제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행위 가운데 해당 행위에 관한 면적이 500평방미터 미만, 높이가 1.5미터 이하 또는 기간이 90일 미만의 것

(2) 토지의 형상의 변경 가운데 다음에서 말하는 것

가. 토요오카시 양호한 지역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행위의 절차 등에 관한 조례(2007년 토요오카시 조례 제31호)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

나. 행위의 장소가 지반면하 또는 수면하인 것

(3) 효고현 문화재보호조례(1964년 효고현 조례 제58호)제12조제1항의 허가를 받고 행하는 행위

(4) 토요오카시 문화재보호조례(2005년 토요오카시 조례 제185호) 제7조의 허가를 받고 행하는 행위

(5) 토요오카시 전통적 건축물군보존지구보존조례(2006년 토요오카시 조례 제67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또는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혹은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고 행하는 행위

(6) 앞 각호에서 말하는 것 외에,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한 행위

(특정신고대상행위)

제14조 법제17조제1항의 조례에서 정하는 특정 신고 대상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혹은 제2호의 신고를 요하는 행위로 한다.

(조언 또는 지도)

제15조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또는 법 제16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 신청에 관한 행위가 경관계획에서 정해진 해당 행위에 있어서의 규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는 해당 협의 또는 신청한 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조언하거나 또는 지도할 수 있다.

(권고의 절차)

제16조 시장은 법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려고 할 경우는 심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능하다.

(변경명령 등의 절차)

제17조 시장은 법제17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조치(이하, ‘변경명령 등’ 이라고 함)를 명하고자 할 경우는 미리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경관중요건축물 혹은 경관중요수목의 지정)

제18조 시장은 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중요건축물 혹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중요수목의 지정을 하려고 할 경우는 심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능하다.

2 시장은 경관중요건축물 혹은 경관중요수목의 지정을 할 경우는 규칙에서 정하는 부분에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고시해야만 한다.

3 앞의 2항의 규정은 경관중요건축물 혹은 경관중요수목의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해 준용한다.

(경관중요건축물의 관리 방법의 기준)

제19조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중요건축물의 관리 방법의 기준은 다음에서 말하는대로 한다.

- (1) 경관 중요 건축물의 수선은 원칙적으로 해당 수선 전의 외관을 변경하지 않을 것
- (2) 경관 중요 건축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건축물의 외관, 구조 혹은 건축설비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 (3) 화재경보기 혹은 소화기의 설치 그 외 방재상의 조치를 강구할 것
- (4) 앞 3호에서 거론한 것 외에 경관중요건축물의 양호한 경관의 보전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경관중요수목의 관리 방법의 기준)

제20조 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중요수목의 관리 방법의 기준은 다음에서 말하는대로 한다.

- (1) 경관 중요 수목의 양호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전정 그 외 필요한 관리를 할 것
- (2) 경관 중요 수목의 멸실 또는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병해충의 구제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3) 앞 2호에서 거론한 것 외에 경관중요수목의 양호한 경관의 보전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경관 중요 건축물 혹은 경관중요수목의 형상변경허가 절차)

제21조 시장은 법제22조제1항 혹은 법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관중요건축물 혹은 경관중요수목의 형상변경의 허가를 할 경우는 미리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원형회복명령 등 절차)

제22조 시장은 법제23조제1항 또는 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형회복 또는 거기에 대신할만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는 미리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관리에 관한 명령 또는 권고의 절차)

제23조 시장은 법제26조 또는 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방법의 개선 그 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고 할 경우 또는 권고하려고 할 경우는 미리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공표)

제24조 시장은 법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공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시장은 앞 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를 할 경우는 미리 해당 공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책정)

제25조 시장은 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을 정하려고 할 경우는 미리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2 앞 항의 규정은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경관형성활동단체의 인정)

제26조 시장은 시민단체 가운데 다음 각항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경관형성활동단체로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1) 그 활동이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특히 유익하다고 인정될 것
- (2) 활동 혹은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
-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

2 시장은 앞 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할 경우는 그 취지를 해당 경관형성활동단체에 통지함과 동시에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3 시장은 경관형성활동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인정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에 대해서 준용한다.

(경관 형성 활동단체와의 연대 등)

제27조 시는 경관 형성 활동단체와 연대해서 양호한 경관의 형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행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 형성 활동 단체에 대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협의의 내용의 제공 혹은 의견의 청취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창)

제28조 시장은 양호한 경관의 형성 또는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를 표창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성 등)

제29조 시장은 경관형성중점지구에서 양호한 경관의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행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조성하거나 또는 기술적 원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시장은 경관중요건조물 또는 경관중요수목의 보전 등을 위해서 그 소재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조성하거나 또는 기술적 원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시장은 경관형성활동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호한 경관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임)

제30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서 정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계산해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서 정하는 일부터 시행한다.

(히다카쵸 마을경관조례의 폐지)

2 히다카쵸 마을경관조례(1998년 히다카쵸조례제29호, 이하 ‘구조례’ 라고 함)는 폐지한다.

(경과 조치)

3 이 조례의 시행일(이하 ‘시행일’ 이라고 함) 전에 경관의 형성 등에 관한 조례(1985년 효고현 조례 제17호) 제10조제1항 혹은 제3항, 제17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된 신청 혹은 동 조례 제11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협의 혹은 동 조례 제14조제1항, 제21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행해진 통지는 각각 이 조례의 상당 규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

4 시행일 전에 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행해진 신청은 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